

My
life,
My
drama.



목차

김다은	아이와 아이	5
김민지	오 마주 보다	43
김채영	담을 넘는 아이	65
최예술	벗! But,	97



아이와 아이

등장인물

송아름

김채이

규리

김단하

병원 원장

간호사

장소

병원 진료소

김다은

1장

조명이 켜진 뒤, 송아름과 병원 원장 사이에 테이블이 놓여 있다.

송아름: (조급해하며) 그러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된 일이나면요.

병원 원장: 마음 편히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같이 심호흡해볼까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병원 원장의 목소리에 맞춰서 송아름은 심호흡을 따라 한다.

병원 원장: 여기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진정되면 천천히 말하셔도 돼요.

송아름: 네, 감사합니다. (물을 마신다)

정적

병원 원장: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송아름: 네, 조금 진정된 것 같아요.

병원 원장: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송아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병원 원장: 인터넷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송아름: 너무 불안한 마음에 많이 찾아봤거든요. 찾다가 찾다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오게 되었어요. (한숨 쉬며 고민하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여기에 온 이 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병원 원장: 혼자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겠어요. 힘드셨죠?

송아름: 아기를 가진 것도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것보다 남자친구 반응 때문에 더 심란했어요.

병원 원장: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송아름: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임신중절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걸 쉽게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네가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쉽게 생명을 없애버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제 인생을 생각해보면 없애는 게 맞는 것 같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원 원장: 지금 남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송아름: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 연락도 안 받고, 학교도 안 나와요. 무서워서 잠수 탕나 봐요. 개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후,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너무 분해!

병원 원장: 혹시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송아름: (한숨 쉬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관심이라곤 하나도 없어요. 그 흔히 말하는 일중독에 걸렸달까요? 엄마 아빠 전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세요. 저희 부모님은 사랑은 돈으로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고민거리를 용기 내서 이야기해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힘든 일 있어서 징징거리면 용돈 주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래요. (헛웃음) 전 그냥 엄마 아빠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바란 건데... 제 친구들은 이런 저의 부모님이 부럽대요. 다른 친구들은 복에 겨웠죠.. 사랑만 많이 받고 자라서 저의 마음은 하나도 몰라요. 아마도 공감조차 못해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제 삶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으면서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왜그리 강조하시는지.. 안 가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는 못 말하겠어요. 사실대로 말이라도 하면 전 내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병원 원장: 어린 나이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아름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송아름: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 같아서 는 확 수술해 버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한 인생 살고 싶은데, 생명을 지운다는 게 마음에 참 걸리네요. 작은 생명이라고 해도 움직이기도 하고 살아도 있잖아요. (흥분하며) 심지어 제 뱃속에 절 닮은 아이가 있다는데 어떻게 지우죠? 원장님 저 정말 어떻게 할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병원 원장: 아름양 잠시 진정하고요. (마트료시카를 꺼낸다) 이게... 그...

송아름: 이게 뭐예요..? 이거 그 마티...그 마테시카? 그거 아니예요?

병원 원장: 맞아요. 마트료시카. 이 마트료시카는 조금 남다른 마트료시카예요.

송아름: 뭐가 다르죠? 다른 마트료시카랑 똑같이 생겼는데...

병원 원장: 이건 사실 (귓속말하며) 미래를 볼 수 있는 마트료시카거든요.

송아름: (놀라며) 네? 그게 말이 돼요?

병원 원장: 제가 이걸 구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겨우 찾은 귀중한 거예요. 한 마디로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레어템이죠.

송아름: 정말요? 그 레어템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병원 원장: 이 마트료시카는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만 보여주고 있어요. 크기가 다른 마트료시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아름양이 미래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양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 랜덤으로 보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작은 이 마트료시카가 현재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송아름: 네! 저 지금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병원 원장: 잠시만요! 주의사항을 먼저 숙지하셔야 합니다.

송아름: 아 네! 네.

병원 원장: (종이를 건네며) 이걸 읽어보시죠.

송아름: (종이를 보며) 마트료시카 주의사항. 하나. 마트료시카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릴 경우 현재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 둘. 마트료시카를 선택해 걸린 미래의 상황은 랜덤이다. 마트료시카를 선택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셋. 마트료시카로 미래를 갈 수 있는 기회는 3번 뿐이며, 마트료시카 인형 하나에 하루에 시간이 주어진다.

병원 원장: 주의사항을 다 읽으시고 동의하시면 여기
(중이)에 싸인 부탁드립니다.

송아름: 저 잘할 수 있겠죠..? (중이에 싸인을 한다)

병원 원장: 아름양, 응원할게요.

송아름: 그나저나 원장님은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되
셨어요?

병원 원장: 아. 저도 예전에 아름양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 복잡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던 그 상황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다른 병원과는 다
르게 특별한 병원을 만들게 되었어요. 아직은
제 스스로 병원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색하네
요. 그냥 상담센터 겸 병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송아름: 아, 원장님도 예전에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때
그 아이 지금 키우고 계시나요?

병원 원장: 아니요, 너무 두려운 마음에 바로 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했어요. 그때 그 일을 저질렀던 남
자친구가 지금 제 남편이고, 지금은 애 하나 낳
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지운 아이에 대
해 후회가 계속 남더라고요. 제 딸에게 언니나
오빠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하는 이런 후회
랄까요? 어리고 두려운 마음에 그 작은 생명을
지워버린 것도 마음에 걸리고, 제 아이를 보면

그때 그 아이가 문득 생각나요. 그래서 여기에 온 분들만큼은 후회 안 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아름양도 미래를 보고 오시면 아름양의 결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송아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실에서 원장님이 나간다.

송아름: 그래, 어떤 미래가 나오든 지금보단 상황이 괜찮을 거야.

송아름은 마트로시카 하나를 선택한다.

2장

미래로 온 송아름은 어리둥절하다.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한다.

송아름: 여보세요?

김채이: 아름아~ 오랜만에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잘 살고 있어?

송아름: 누.. 누구세요?

김채이: 내 전화번호 저장도 안 했어? 뭐야~ 20년지

기 친구 맞아? 다시 봤다 송아름?

송아름: 20년지기..? 혹시 지금 몇살이지?

김채이: 우리 29살이잖아~ (당황한 듯) 아름이 아니야? 아름이 목소리는 맞는데...?

송아름: 우리가 29살이라고? 벌써?

김채이: 그래! 오늘 처음 안 사람처럼 왜 그래? 세월 빠르다니까? 그나저나 아직도 나 모르겠어? 나 채이잖아! 너 단짝친구! 김채이

송아름: (잠시 정적하다가) 아! 김채이? 아~ 너가 김채이구나?

김채이: 뭐야? 이제 안 거야? 내 전화번호 저장 안 했어? 몇 년 못 봤다고 이렇게 나를 잊은 거야?

송아름: 아..아니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꿔서 그래. 잘 지내지?

김채이: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너는?

송아름: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요즘 뭐하고 지내?

김채이: 말해 뭐해, 애 보느라 바쁘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다. 야.

송아름: 뭐야? 너 애 있었어?

김채이: 뭐야? 새삼스럽게 왜 그래?

송아름: 네가 언제부터 애를 키웠다고.. 지금 몇살이지?

김채이: 5살이지. 너 규리 종종 봤었잖아! 기억 안 나?

송아름: 아.. 아니! 기억나지! 규..규리! 잘 크고 있지?

김채이: 그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니까 서운한 거 있지? 이젠 천천히 컸으면 좋겠어. 뭐가 급

하다고 빨리 크는지..참...

송아름: 이제 5살이면 지금이 딱 귀여울 나이네!

김채이: 귀여운 것도 귀여운 건데 애가 누굴 닮았는지
고집도 진짜 세..

송아름: 너 닮았나 봐. 너 고집 세기로 진짜 유명했잖아.

김채이: 그런가?

송아름: 그나저나 너 내일 나랑 만날 수 있어?

김채이: 갑자기? 난 규리 봐야지.

송아름: 뭐? 내일도 애를 본다고?

김채이: 그럼~ 맨날 봐야지. 더군다나 내일 주말인데... 애가 혼자 무슨일을 할 수 있겠냐. 엄마의 삶이 이런거지, 애 하나 키우는데 시간 정신없이 흘러가.. 넌 모르지? 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마음껏 즐겨.

송아름: 즐기긴 무슨... 내일 내 생일이니까 바람도 쉴 겸 만나자. 오랜만에 규리도 보고싶네.

김채이: 아 맞다! 내일 너 생일이지? 매년 기억했는데 이젠 나도 아줌마 다 됐네...

송아름: 그러니까.. 이제 옛날의 김채이가 아니야. 내일 내가 너희집 쪽으로 갈게.

김채이: 그래~ 고맙다~ (끊으려다가 다시 말을 이어간다) 아니. 근데 잠시만. 내일 규리도 데려오라고?

송아름: 응, 왜?

김채이: 규리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송아름: 응, 규리도 너랑 같이 오라니까? 셋이서 만나
자고! 나 오랜만에 규리 보고싶어.

김채이: 내가 알던 송아름이 아니야. 너 원래 애 진짜
싫어하잖아. 애 이야기만 나와도 질색팔색하던
애가...

송아름: 에이, 그정도는 아니었다. 나 아이들 나름 좋
아했어~ 내일보자!

전화를 끊은 뒤, 송아름은 허무하다.

송아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20년 친구라고 나
에 대해서 아는 건 무지 많아... 다들 잘 살고 있
는 것 같네. 나도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다음 날이 되어 송아름은 김채이 집 앞에 왔다.

송아름: 여보세요? 나 지금 너네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김채이: 어.. 미안! 미안! 지금 내려갈게!

송아름: (전화를 끊은 뒤) 바쁘네.. (걸어오는 김채이
를 보며 반가운 마음으로) 채이야!

김채이: 아름아 오랜만이야! 규리야 이모한테 인사해
야지.

규리: 이모, 안녕하세요.

송아름: 어머, 벌써 이렇게나 컸어? 내 기억엔 규리는
엄마 품에서 꿈쩍도 안 했었는데

규리: 저 진짜 많이 컸어요! 언니 되려고 밥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콩도 먹을 수 있어요!

송아름: 우와 규리 이제 언니 다 됐네?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규리: 음.. 아이스크림이요!

송아름 : 그래, 그럼 이모가 밥 먹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김채이: 우와, 우리 규리 좋겠네? 그럴 땐 이모한테?

규리: 감사합니다!

김채이: 아름아 내가 예약해둔 곳 있거든?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가자!

송아름: 그래!

송아름과 규리는 김채이가 예약한 식당으로 간다.

규리: 우와! 예쁘다!

송아름: 우와 진짜 예쁘다. 규리야 그렇지?

김채이: (뿌듯해하며) 진짜 예쁘지? 여기 앉자.

송아름과 김채이, 규리 모두 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린다. 송아름은 김채이와 마주보고 있다, 송아름의 대각선에는 규리가 자리 잡았다. 기다리는 동안 물티슈로 송아름과 규리는 손 닦을 준비를 한다.

송아름: 규리야! 이모랑 같이 손 닦자!

규리: 네, 좋아요!

송아름: 한 손으로 물티슈를 잡고 손가락 하나 하나 깨끗하게 닦아 볼까? 이모 따라해 봐!

규리: (송아름을 따라한다) 이모! 이모랑 이렇게 닦으니까 재밌어요!

김채이: 뭐야? 무슨일이야. 엄마랑 있을 때는 손 닦기 그렇게 싫어하더니?

규리: (밝게 웃으며) 이모랑 닦으니까 너무 재밌어! 나 손 또 닦고 싶은데.. 엄마, 나 한 번만 더 닦으면 안 돼? 제발~

김채이: 송아름 너 뭐야? 다시 봤다? 왜이렇게 네가 애 엄마인 마냥 육아를 잘해?

송아름: 뭘, 새삼스럽게, 난 뭐든지 잘하는 거 알잖아. 내가 못하는 거 본 적이라도 있어?

김채이: 아무리 그래도 육아까지 잘할 줄은 몰랐지.. 나 몰래 애를 가져본 적이라도 있냐?

송아름: 뭐, 애를 가져보긴 했지. 아 아니 가졌다고는 할 수 없냐?

김채이: 뭐?

송아름: 아, 아니. 후.. 후원 그 다른 애 후원했다고. (태연스럽게) 나 지금 이삭 엄마야~ 지금은 탄자니아에 살고 있지만... 넌 누구 후원하는 애 없냐?

김채이: 후원이고 뭐고, 규리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규리: 이모! 손 닦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아름: 그래~ 이제 규리한테 세균이 절대 못 들어가겠네? 이제 맛있게 밥 먹자!

김채이와 송아름, 규리는 음식을 먹는다.

송아름: 규리야 엄마 좋아?

규리: 네!

송아름: 얼마나 좋아?

규리: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좋아요!

송아름: 진짜? 엄마가 제일 좋아?

규리: 네 전 엄마가 제일 좋아요!

송아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규리: 음.. 아빠한테 비밀인데.. 엄마요!

김채이: (어이없지만 귀여워하며) 애가 잔머리는 또 얼마나 잘 굴리는지 아빠 앞에서는 아빠가 더 좋다고 하고, 엄마 앞에서는 엄마가 더 좋다고 해.

송아름: (웃으며) 잔머리 굴리는 것까지 널 닮았네.

김채이: 그치, 하는 행동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 너무 나 같아가지고..

송아름: (김채이를 보며) 규리 진짜 예쁘다. 넌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김채이: 당연하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규리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막
그런다?

송아름: 진짜? 너 규리 낳기 전까지만 해도 인생에서
네가 제일 중요했잖아!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
고..

김채이: 그러니까, 나도 엄청 신기해. 모성애가 이렇게
강할 줄이야 나도 몰랐지..

송아름: 엄마라는 이름이 진짜 대단한 이름인가 봐.

김채이: 그나저나,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요즘 너 취업도 잘했고, 일이 술술 풀린다고 얘
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

송아름: 부러움은 무슨...

김채이: 그래 너 정도면 성공한거지.. 대학도 잘 가고
대기업에 취업도 하고.. 역시 될 놈들은 된다니
까?

송아름: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면 행복만 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난 지금 네가
부러워

김채이: 뭐? 내가 부럽다고? 왜?

송아름: 너 닳은 애기랑 이렇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삶
이 웬지 모르게 행복해 보여.

김채이: 아직 네가 뭘 모른다 야. 내가 말했지! 지금 더
즐거. 더 즐기고 행복한 삶이 질릴 때, 그때 결
혼해!

송아름: 널 보면서 느낀 건데, 한 사람을 책임지고 돌

본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행복한 일인 것 같아. 애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넌 진짜 규리보면 살 맛 날 것 같다. 김채이: 애가 갑자기 왜그래? 야 괜찮냐?

송아름: (한숨쉬며) 지금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열심히 살아도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한 느낌 알아..? 나도 너처럼 의미 있는 삶 살고 싶다.

김채이: 너 닮은 애 있으면 진짜 예쁘고 푹푹하긴 하겠다 야.

송아름: 그치? 나도 애가 있었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팠겠지?

규리가 졸려한다.

김채이: 이제 규리 낮잠 시간이다. 규리 짜증내기 전에 빨리 가볼게. 오늘 재밌었어! 생일 축하하고, 다음엔 제대로 놀자~

송아름: 그래! 오늘 고마웠어, 조심해서 잘 가!

김채이와 규리는 퇴장하고 송아름만 혼자 무대에 남는다. 송아름 앞에는 마트로시카가 놓아져 있고, 송아름은 고민하다가 마트로시카 하나를 선택한다.

3장

송아름은 미래로 왔다. 미래로 오자마자 송아름에게 전화가 온다. 송아름은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한다.

송아름: 왜 또 전화야. 윤설화? 이 사람이 누구지?

송아름: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네? 누구라고요? 팀장님이요? 아~ 근데 죄송한데 혹시 무슨 팀장님이시죠..? 제가 다니는 회사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요? 혹시 어제도 제가 회사를 나갔나요? 아~ 어제 빨간날이었구나~. 그나저나 왜 전화하셨어요? 아 보육원 봉사요? 내일이요? 혹시 어디 보육원이예요? 꿈빛보육원? 아 팀장님이 시간이 안 되시는구나.. 저도 그리 한가한 사람은 아닌데.. 하루만 가면 된다고요? 네? 7시 30분에 강서역 앞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밤 보내세요!

송아름: (핸드폰을 쳐다보며) 꿈빛보육원? 아, 여기가 미래인가 보다. 어떤 미래지? 내가 꿈빛보육원 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혹시 그 곳에 내 아이가 있는 건가?

다음날 송아름은 회사 동료들과 보육원에 도착했다. 보육원에는 많은 아이들이 보였고, 그들은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다. 송아름은 많은 아이들 중 김단하가

자신의 딸임을 단번에 알아챈다.

송아름: 아, 저 아이가 내 아이구나. 내 어렸을 적 모습
이랑 똑같이 생겼네..

**송아름은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아 있는 김단하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다.**

송아름: 안녕..?

김단하: (어색해하며) 안녕하세요.

송아름: 이름이 뭐야?

김단하: 김단하예요.

송아름: 혹시 12살이니?

김단하: (조금 놀라며) 네. 어떻게 아셨어요?

송아름: 아줌마가 축이 좀 좋아! ㅎㅎ 여기에 몇살 때
부터 있었어?

김단하: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송아름: 태어났을 때부터?

김단하: 아마도 그럴 거예요.

송아름: 단하는 아주 예쁘고 귀엽게 생겼네... 어렸을
때부터 사랑 아주 많이 받았겠다.

김단하: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많이 사
랑했대요.

송아름: 그렇지.. 정말 많이 사랑했지..

김단하: 네?

송아름: 아 아니야!

김단하: 그래서 여기 보낼 때도 엄청 울었다던데...

송아름: 이렇게 예쁜 아이를 보냈으니.. 엄마가 엄청 슬펐나보다.. 그러면 단하는 엄마 보고싶지 않아?

김단하: 모르겠어요.

송아름: 모르겠다는 건 무슨 의미야?

김단하: 엄마가 곁에 있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얼굴도 모르기도 하고... 전 엄마의 따뜻한 품을 말로만 들었지, 직접 느껴본 적은 없어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송아름: 단하는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김단하: 당연히 있으면 좋겠죠..? 엄마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잖아요.

송아름: ...그렇지? 엄마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지.. (어색해하다가 음료수를 건네며) 이거 먹어.

김단하: 괜찮아요!

송아름: 왜? 아줌마가 단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인데? (정적) 그래도 안 받을 거야?

김단하: (송아름의 눈치를 보며) 감..감사합니다. (혼잣말로) 이 음료수 제일 좋아하는 건데!

송아름: 정말? 나도 이 음료수를 제일 좋아하는데!

김단하: (송아름을 힐끗 쳐다보고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김단하는 혼자 음료수 뚜껑 여는 것을 힘겨워 한다.

송아름: 음료수 줘볼래? 열어줄게

김단하: (즉시 반응하며) 아뇨!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혼자 뚜껑을 따려고 하지만 힘겨워한다)

송아름: 아줌마가 해줄게!

김단하: 아 괜찮아요. (계속 뚜껑을 따다)

송아름: (지켜보다) 아줌마가 해주면 안 돼?

김단하: 제가 할 수 있어요. (계속 힘겨워한다)

송아름: (지켜보다가 간절하게) 아줌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줌마가 해줄게, 줘 봐!

김단하: 아니에요. 제가 할래요. 저 정말 할 수 있어요.

송아름: (감정을 억누르며) 단하야! 혼자 못하겠으면 어른들에게 부탁해. 너 아직 어리잖아. 그래서 단하 주변에 어른들이 있는 거야. 단하가 혼자 못하겠으면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 어른들이 단하를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단하 나이엔 어리광 부리고 떼서도 충분히 괜찮아. 그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야!

김단하: 아줌마가 지금 도와준다고 해도, 아줌마 가면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엔 어리광 받아줄 사람도 없고요. 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모든 것을 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더 좋은 어른이 되는 거래요. (깡깡 대다가 결국 뚜껑을 연다) 봐요, 저 할 수 있죠? (한 입 마신다)

송아름은 김단하를 안쓰럽게 쳐다본다.

송아름: 맛있지?

김단하: (끄덕끄덕)

송아름: 이 보육원에서 단하가 제일 언니야?

김단하: 저희 반에서 제일 언니예요.

송아름: 동생들 돌보는 거 안 힘들어?

김단하: 네.

송아름: 동생들이 단하 말을 잘 듣나보네?

김단하: ...네

송아름: 왜? 말 잘 안 들어?

김단하: 요즘따라 동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송아름: 단하가 많이 힘들겠네.. 아줌마가 동생들 혼내
줘야겠다!

김단하: 아 안 돼요! 동생들도 슬퍼서 그런 거예요.

송아름: 동생들이 슬프대? 왜?

김단하: 어린테도 엄마, 아빠가 안 돌봐주잖아요. 선생님
님들도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돌봐주
고 있는데 전 아직 어려서 많이 부족한가 봐요..

송아름: 단하도 슬프지..?

김단하: 전 안 슬퍼요. 전 엄마 아빠, 선생님이 없어도
저 혼자 다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생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슬픈 거예요.

송아름: 그러면 단하도 어렸을 땐 슬렸어?

김단하: 네..? 그때는 조금? 아주 조금 슬렸는데... 아

아니다! 안 슬펐어요!

송아름: 어렸을 때 누가 많이 도와줬어?

김단하: 아니요, 선생님들은 절 보면 항상 스스로 다
잘한다고 칭찬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항상 저
혼자했어요!

송아름: 도움 받고 싶지 않았어?

김단하: 네.

송아름: 왜?

김단하: 제 옆에 있는 어른은 선생님들 뿐인데, 선생님을
힘들게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저말고
도 돌봐야 할 친구들이 많거든요..

송아름: 선생님들이 힘드시대?

김단하: 제가 보기엔 선생님들은 항상 힘들어 보이세요.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전
슬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안 힘들게 하려
면 스스로 잘해야 돼요.

송아름: 단하도 아직 많이 어린데..

김단하: 아니에요! 저 안 어려워. 전 스스로 다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는 두달도 안 돼
서 목을 가눴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거의 울
지도 않았했어요. 선생님들이 저는 키우기 쉬웠
다고 그랬어요!

송아름: 선생님들이 단하를 도와줬으면 좋겠지 않아?

김단하: 괜찮아요. 전 지금이 좋아요.

송아름: 지금이 좋다고?

김단하: 네.

송아름: 여기가 좋아?

김단하: 네, 저는 여기가 좋아요. 동생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좋아요!

송아름: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항상 행복한 거야?

김단하: 음.. 항상 행복하진 않아요.

송아름: 왜? 여기가 제일 좋다며..

김단하: 좋긴한데.. 밤마다 웬지 모르게 눈물이 나거든요. 밤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요.

송아름: (놀라며) 왜? 속상해서?

김단하: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송아름: 선생님들은 단하가 우는 거 몰라?

김단하: 선생님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 몰래 울거든요. 이불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송아름: 단하야! 선생님한테 말해, 속상하다고! 나 지금 슬프다고, 지금 나 좀 돌봐달라고 선생님께 말씀 드려!

김단하: 아! 절대 안 돼요. 선생님을 걱정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눈물 꼭꼭 참으려고 하고 있어요. 울어도 될 건 없다는 건 저도 이제 다 알거든요. 그냥 제 마음만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송아름: 마음 더 강해질 필요 없어 단하야, 선생님께 슬프면 슬프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눈물나면 눈물난다고 말해. 너는 그래도 되는 아이야. 너 스스로를 속일 필요도 없고, 스스로 클 필요

도 없어.

김단하: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커서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절 보면 기뻐할 수 있게.. 엄마가 어딘스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엄마한테 잘 컸다고 꼭 칭찬 받고 싶어요.

동생들이 김단하를 부른다.

김단하: 아줌마, 저 이제 가볼게요. (자리를 떠난다)

송아름: 별..벌써?

김단하: 동생들이 불러요. 제가 필요한가 봐요!

송아름: 어..? 그..그래.. 다음에 또 보자!

송아름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다.

송아름: 저렇게 예쁜 아이를...내가 저렇게 예쁜 아이를 여기에 두고 갔다니.. (멍하니 그 아이를 바라보며) 혼자 크려는 모습이 어렸을 때 나랑 똑 같네.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단하를 키웠다면 어땠을까? 지금 내가 본 단하와 많이 달랐을까? 아마도 내가 키웠다면 단하가 이렇게 혼자 살아가려는 모습은 없었겠지? 항상 사랑 받으면서 자랐겠지? 지금이라도 내가 키울까? 아니야. 이제와서 미안해서 어떻게 데려가. 단하가 나한테 오지도 않겠지?

송아름 앞에 마트로시카가 나타난다. 송아름은 마트로시카 하나를 선택한다.

4장

송아름은 어색한 듯 주위를 둘러본다.

김단하: (방에서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온다)

송아름: (탁자에 앉아 놀란 눈으로 김단하를 쳐다본다)

김단하: (송아름을 보며) 나 간다.

송아름: 누..누구지?

김단하: 어?

송아름: 너 누구데 여기있어?

김단하: (어이없어하며) 어? 내가 누구냐고? (헛웃음)
엄마 뭐야? 왜 그래?

송아름: 엄마? (지금 생각난 듯) 아~ 단하구나! 어딜
가려고 그래?

김단하: 몇번이나 말해. 나 독립한다고 했잖아!

송아름: 독립..?

김단하: 어. 나 독립할 거니까 찾지 마. 나 갈게.

송아름: (조급해하며) 아니, 아니 잠깐만. 아주 잠시만
앉아봐.

김단하: (단칼에 거절하며) 시간 없어.

송아름: 엄마랑 조금만 이야기하자. 너 독립한다며. 엄
마랑 마지막 날이잖아. 이대로 갈 거야?

김단하: (마지못해 자리에 앉는다)

김단하가 앉은 뒤, 잠시동안 정적이 흐른다. 송아름은 김단하의 눈치를 본다.

송아름: 진짜 갈 거야?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싫어?

김단하: 그런 거 아니야.

송아름: 그럼 왜 가려고 하는 거야..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 엄마랑 살아야지... 이제 너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도 못 산다?

정적

김단하: 엄마. 왜 계속 나랑 살고싶은 거야? 엄마는 지치지도 않아?

송아름: (놀라며) 지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지친 모습이라도 본 적 있어?

김단하: (감정을 억누르며) 엄마. 이제 엄마도, 나도 어린아이가 아니야. 나 이제 곧 스무살이잖아. 나도 이제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살아보고 싶어. 엄마도 이젠 나 신경쓰지 말고 엄마 인생 살면 안 돼? 하고 싶은 일 실컷하면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 다 해보면서 살아. 그러다보면 우리는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잖아..

송아름: 뭐? 엄마보고 널 신경쓰지 말라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는 너가 더 좋은 옷 입으면 좋겠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네가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에... 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청춘을 포기했어.

김단하: (송아름 대사 끝나고 바로)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엄마가 얼마나 희생을 하면서까지 날 키웠는지. 나도 아주 잘 알아. 그래서 그냥 살았어.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어도 좋다고 말하면서.. 그냥 엄마가 실망할까봐 지금까지 참으면서 살았어. 근데 이젠 못해. 이젠 그만할래.

송아름: 힘들게 키운 건 엄만데 왜 네가 더 힘들다고 해? 엄마가 잘해줬잖아. 정말 잘해줬잖아. 아니야?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살았는데.. 엄마가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결국 이거야..?

김단하: 엄마는 나에 대해서 몰라. 진짜 모르잖아. 내가 뭘 바라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었긴 해?

송아름: 네가 바라는 게 뭔데. 아빠? ... 아빠야? 그래서 엄마가 아빠 빈자리 못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잖아. 너도 알잖아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근데도 빈자리가 느껴져?

김단하: 아빠 빈자리가 채워진다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었어. 엄만 모르지? 난 그저 엄마의 따뜻한 품을 기다렸던 거. 엄마는 뭐, 나를 잘 키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난 좀 다르게 생각해. 엄마의 지나친 헌신과 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어.

송아름: 엄마의 관심이 싫었다고? 그 관심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넌 모르지? 엄마는 아무에게도 도움 받지 못하고 컸어. 6살 때부터 혼자서 모든 걸 했을만큼 혼자 자랐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관심은 커녕 같이 보내는 시간조차 없었어. 그래서 너만큼은 나처럼 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키운 건데 내가 잘못된 거야?

김단하: (해탈한 듯) 엄마 잘못 아니야. 근데 나 지금 좀 지쳤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지금 엄마도 꽃다운 나이잖아. 엄마, 제발 나 좀 버려줘. 제발.

정적

5장

김단하: 엄마, 미안해.

송아름: 아니야.

김단하: 미안해, 내가 좀 심했지?

송아름: 다 엄마 잘못이야.

김단하: 아니야, 아닌 거 알잖아.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니까?

송아름: 안 가면 안 돼?

김단하: 엄마, 나 이제 진짜 가야 돼..

정적

송아름: 엄마가 더 잘할게. 그냥 같이만 있어줘. 엄마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김단하: 엄마 왜그래? 영원히 안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독립하겠다는데. 딸이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니까? 엄마는 딸이 독립하는 게 싫어?

송아름: 네가 독립하면 하루종일 네 생각나서 엄마는 어떻게 살아?

김단하: 엄마 해보고 싶은 거 많았잖아. 이제 그거 하나씩 하면서 살아.

송아름: 해보고 싶은 거 안 해도 돼. 너랑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돼.

정적

김단하: ... 엄마... 나 엄마 좋아해, 알지? 나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나도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우리 잠시만이라도 아주 잠시만 시간을 가지자. 나 그래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 행복했어. 나도 알아. 엄마가 나를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운 거. 그래서 난 엄마의 사랑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만 생각했지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어찌먼 아빠와 엄마가 주는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을지도 몰라. 사랑 정말 많이 받고 자라서 좋았어. 정말 좋았는데, 엄마한테 기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어.

송아름: 지금 너 나이엔 엄마한테 기대도 돼. 충분히
그래도 돼.

김단하: 나도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엄마한테만 기대면서 살아? 솔직히 이렇게 사
는 거 불안해. 너무 불안하단 말이야. 엄마랑 같
이 살 동안 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조
차 주어지지 않았어. 나는 엄마를 따라다니는
기계가 아니야. 나도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연
습할래. 제발, 엄마. 제발 나 좀 놓아줘.

정적

송아름: 내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김단하: 엄마, 제발 미안해하지 마. 난 더 이상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보기
싫어. 엄마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고, 지금도 나
에게 충분히 좋은 엄마야. 그리고 앞으로도 나
에게 좋은 엄마일 거라고 확신해. 나 엄마랑 같
이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 이거 하나는 확실하
게 말할 수 있어. 진짜야. 엄마도 내 마음 알지?
언제나 엄마 응원하고 있을게. 사랑해. (캐리어
를 끌고 나간다)

**부동 자세가 된 송아름 앞에 마트료시카가 놓인다.
다른 마트료시카들은 다 사라지고 현재를 되돌아가는
것 밖에 안 남았다. 송아름은 현재로 되돌아가는 걸
선택한다.**

6장

송아름은 미래에 나를 만나고 온 뒤, 다시 현재로 되돌아왔다.

송아름: 오늘따라 유독 방이 더럽네. (방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한다) 오랜만이야, 이 시간.

송아름: (앞에 보이는 마트료시카를 보며) 째았지만 좋았어..

송아름: (방을 정리하다 말고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 소리

송아름: 또 역시나 안 받네..

핸드폰을 내려 놓는 동시에 문자 소리가 난다

송아름1 : (핸드폰을 보고 딱딱하게 문자를 읽는다)
 딸, 왜? / 엄마는 항상 한결같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송아름 핸드폰에서 전화가 울린다

송아름: 어? 엄마가?

송아름은 바로 전화를 받는다.

김채이: 송아름~ 뭐하고 있어? 너 아프다며? 괜찮냐?
그러니까 대학가려면 몸관리 잘해야 한다고 했지? 내가 너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거 보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나와! 같이 밥이라도 먹자.

송아름: 아니야, 나 지금 밥 먹을 기분 아니야.

김채이: 무슨일있어?

송아름: 어, 좀 혼자 생각할 문제가 있어서...

김채이: 혹시 남친이랑 헤어졌어?

송아름: 아마도.. 헤어졌을 거야

김채이: 뭐? 헤어졌다고도 아니고, 헤어졌을 거라고?

송아름: 중요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나 이만 끊을게~

전화를 끊는다.

송아름: (불안해하며) 아, 이걸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답답해! 채이한테 말해볼까?

송아름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채이한테 전화를 건다.

김채이: 여보세요?

송아름: 채이야..

김채이: 왜 전화했어? 까먹고 안 한 말이라도 있어?

송아름: 어..그게 내가 사실 (정적)

김채이: 왜, 무슨일인데?

송아름: 아, 아니다. 그냥 밥 다음에 같이 먹자고~

김채이: 뭘데~ 방금 다른 거 말하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대로 말해봐.

송아름: 어?

김채이: 우리 이래봐도 거의 10년 지기 친구잖아~ 나
못 믿어?

송아름: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음에 밥
살게~ 진짜 끊는다? 안녕~

송아름은 전화를 끊고 고민을 한다.

송아름: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건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맞겠지? 내 선택이 틀리게 된다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내 삶이 중요하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해야 한다? 이걸 아니야. 아기한테 미안하긴 한데 아직 작으니까.. 어쩌면 아이한테 더 좋을 수도 있겠네. 미래에서 봤잖아. 힘들게 키웠는데 아이가 더 힘들어했던 거. 차라리 태어나서 힘들게 살게하는 것보다 일찍 없어지는 게 아기한테 좋을 수도 있겠어. 그래, 그렇게 하자.

송아름은 결심을 하고, 병원으로 간다.

7장

송아름은 병원에 도착했다.

간호사: 송아름님~ 진료소로 가시면 됩니다.

송아름: 네.

송아름은 진료소에 들어간다.

병원 원장: 오랜만이네요. 잘 다녀오셨어요?

송아름: 네, 다녀온 뒤에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병원 원장: 미래에서 아이를 보셨나요?

송아름: 네, 봤어요. 아주 예쁘더군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이였어요.

병원 원장: 그쵸, 딸이었나요?

송아름: 네.

병원 원장: 그럼 아름양 닮아서 더 예뻐졌어요. 혹시 결정은 하셨나요?

송아름: 결정을 하고 집에서 나왔는데 계속 흔들려요. 제가 미래를 가봤을 때 제 아이가 너무 예뻐거든요.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예뻐고, 제가 꼭 지켜주고 싶은 아이였어요. 수술을 선택하면 그 아이를 다시는 못 보는 거잖아요. 전 그 아이랑 있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힘든 일도 정말 많았는데 그만큼 보람도 아주 컸어요. 아이를

보내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는 거죠? 제 잘못으로 아이가 죽는 건데 그 예쁜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꼭 지켜주고 싶어요 그 아이.

병원 원장: 그럼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한 번 낳아서 키워보시는 게 어떨지요?

송아름: 제 삶을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 제 나름대로 제 삶에 계획도 다 세웠고, 이루고 싶은 꿈도 있는데 그걸 못 이루면 어찌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병원 원장: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드시겠지만 결정하시면 아름양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정적

병원 원장: 결정하셨나요?

송아름: 네.

병원 원장: (마트료시카를 꺼내며)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할 경우 왼쪽에 있는 마트료시카,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오른쪽에 있는 마트료시카를 들어주시면 돼요.

송아름: 지금 선택하면 되나요?

병원 원장: 네. 지금 바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송아름의 손이 책상 위로 올라감과 동시에 암전된다.

정적

간호사: 송아름씨~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암전되며 연극이 끝난다.

● fofofofofof

오 마주 보다

등장인물

서화

지아

엄마

선생님

김민지

서화: 오늘은 또 무슨 사진을 업로드해볼까? 어제는 감성적인 걸 올렸으니까 오늘은 발랄한 걸 올려볼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겠다. 발랄이라고 하면 무조건 원피스지. 장소는 어디에서 할까? 음.. 요 앞 잔디 운동장에 가서 찍고 와야 겠다. (퇴장)

지아: 나왔어! 영? 서화 어디 갔지? 사진 찍으려고 밖에 나왔나? 요즘 들어 팔로워 수가 많이 늘고 있던데 열심히 하나 보네. (소파에 누워 쉬려고 한다)

서화: 어 지아 왔네. 나 사진 찍고 왔어. 사진 좀 골라 주라. 나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요 엄청 눌러주고 팔로워 수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어. 대박이지. 칭찬도 엄청 해주시고 내가 사진이랑 같이 올리는 글에 공감도 잘해줘서 요즘 인스타 할 맛 난다! 팔로워들이랑 소통한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진짜 재밌어.

지아: 야 너 그러다가 인스타 중독되는거 아니야? 그거 엄청 무서운 거다. 한 방에 혹 갈 수도 있어. 인스타로는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것들은 하지마!

서화: 당연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또 DM이 와서 대화하다 보면 나랑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

지아: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DM으로 사기 치는 사람들 엄청 많은 거 알지? 저번에도 뉴스에 한번 나왔었잖아.

서화: 내가 호구도 아니고 딱 보면 알지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하셔.

지아: 그래.

(암전)

지아: 기억아 밥 먹어

서화: 알았어 나 댓글 좀 달고

지아: 댓글 그만 달고 밥 먹어. 밥 먹고 댓글 달아도 되잖아.

서화: 알았어 그러면 지금 달고 있는 댓글마저 달고 갈게.

지아: 야 밥 먹으라니까

서화: 아 알겠다고!! 기억아 이것 좀 봐봐 요즘 진짜 핫한 인플루언서한테 연락 왔다. 대박이지 진짜 대박이지. 내일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모여서 파티하는데 그때 혹시 올수 있냐고 물어봄.

지아: 야 우리 내일 고등학교 때 애들 만나서 놀기로

했잖아.

서화: 아~ 그러네. 나 못 간다고 해줘라.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지아: 이번에는 선생님까지 오시는 거 알잖아. 네가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하도 연락 넣어서 이번에 오시는 거 아니야!

서화: 선생님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나 정말 이 파티에 가야 돼. 가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랑 사진 찍어서 올리면 팔로워 수 백퍼 늘어난단 말이야.

지아: 너 인스타는 그냥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용도로만 쓰겠다고 했잖아.

서화: 어!! 소통하는 용도로만 쓸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해. 내가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해줘야지 사람들이 내 게시물을 보고 만족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소통하는거지.

지아: 그럼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해.

서화: 네가 가서 대충 말해줘.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서 동창회 못 온다고.

지아: 그런 건 당사자가 말해야지 그리고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나 소심해서 학창 시절 때도

애들이랑 잘 못 어울렸잖아. 너랑 같이 가야지 재미있단 말이야.

서화: 난 진짜 이 파티에 가야 돼. 미안해.

지아: 어 알겠어. 그럼 나도 안 가.

서화: 아 왜~ 그래도 너는 가야지.

지아: 너 없으면 나 혼자서 혼밥하고 오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서화: 알겠어. 그럼 내가 갔다 올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지아: 지금 내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서화: 그럼 뭘 어떡하라고 나 진짜 못 가.

지아: 그럼 선생님께 연락드려.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서화: 알았어. 내가 전화드릴게 (전화를 건다)

선생님: 여보세요.

서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서화예요.

선생님: 어. 그래 왜 전화했니? 내일 모임 때문에 전화한 거야?

서화: 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연락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모임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선생님: 오. 무슨 일로 못 오는 거니?

서화: 저한테 중요한 기회가 생겼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야 아니야.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건 당연한 거지. 선생님이랑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잖아.

서화: 선생님 바쁘셔서 이번에 스케줄도 간신히 빠신 건데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괜찮아. 나도 모처럼 너희들이랑 놀고 좋지. 물론 네가 안 오는 건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만나면 되니까. 그 기회 꼭 잡길 바랄게.

서화: 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선생님: 그래 끊는다.

서화: 네.

서화: 됐지? (지아를 바라보며)

지아: 어 잘했어.

서화: 그럼 나 파티에 갔다 온다.

지아: 그래.

(암전)

서화: (웃으며) 와 인플루언서들이랑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정말 효과가 크구나. 팔로워 수가 이렇게 늘 수 있다니. 대박! 심지어 나한테 광고랑 협찬도 들어오네.

지아: 너 연예인 아니다.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 너 그런 거 본 적 있지 가상 세계에 너무 빠져서 현실의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서화: 내가 바보냐 절대 안 그러지. 나는 안 해야 될 때는 딱 안 하고 해야 될 때만 조금 하고 그럴 거야. 그리고 현실에 있는 내가 진짜니까 현실에 있는 나를 더 가꿔야지. 어떻게 인스타로 나를 다 표현할 수 있겠어.

지아: 인스타에 중독되면 현실 세계의 나 자신 보다 인스타 속 자신을 더 가꾸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은근 많다!

서화: 그런가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게임 중독자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인스타 중독
자들은 잘 모르겠네.

지아: 아무튼 조심해서 사용해! 절제가 잘 안되면 시
간을 정해놓고 하고.

서화: 에이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지아: 그래도!

서화: 알았어 알았어.

지아: 야 일로 와봐 내가 케이크 사 왔어.

서화: 응 우리 생일 내일이잖아.

지아: 좀 있으면 12시잖아. 생일 되는 날에 바로 서로
축하해 주고 초 불고 케이크 먹고 싶어서!

서화: 그래! 근데 우리 신기한 게 어떻게 같은 날에 태
어났냐. 같은 연도에,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 나
너 말고 본 적 없다.

지아: 나도! 본 적 없음.

서화: 근데 무슨 케이크 사 왔어?

지아: 기대하셔 내가 진짜 맛있는 케이크 전문점에서 딸기 생크림 케이크 사 왔어.

서화: 와 여기 생크림 예술이잖아! 잘했어 잘했어. 어 른 세팅하자.

지아: 그래.

서화: 나 초 부는 거 찍어 주라.

지아: 응 그럼 나는 언제 불러?

서화: 나중에 불면 되잖아

지아: 그건 양보 못해.

서화: 왜 어린애같이 이런 거에 집착해?

지아: 집착이라고? 너도 생일이지만 나도 생일이야. 그리고 이 케이크 내가 사 왔잖아.

서화: 진짜 유치하다. 케이크 내가 내일 똑같은 걸로 사다 줄게! 그냥 나 단독으로 초 부는 거 찍어 주면 안 될까? 인스타에 올리고 싶단 말이야.

지아: 그럼 너가 내일 케이크 사서 찍으면 되겠네.

서화: 그깟 초 부는 게 뭐라고 좀 양보해 주면 안돼?

지아: 그냥 같이 찍은 거 올리면 되잖아. 삼각대 놓고 같이 초부는 거 찍자. 나는 내 얼굴 네 인스타에 올려도 괜찮아.

서화: 나만 찍어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지아: 내가 말했잖아 안된다고. 너 솔직히 내가 부끄럽지. 내가 항상 꾸미는 거에 관심 없고 후줄근하게 다니니까 그런 거잖아. 지금도 나는 트레이닝복 입고 있으니까 같이 찍기 싫은 거잖아. 아니야?

서화: 하... 그냥 찍지 말자. 입맛도 떨어졌다. 우리 케이크 다음에 먹자. 나 내일 약속 있으니까. 먼저 잘게 (퇴장)

지아: 아... 생일 되자마자 싸우냐. 좀 이따 사과할까?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나 혼자 초 불고 다 먹어버릴 거야.

(다음날)

서화: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받은 척 좀 해볼까? (전화를 건다) 안녕하세요. 혹시 명품 대여하는 곳이 맞나요. 아~! 그러면 명품 가방이랑 옷 좀 대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잘 좀 배송해 주세요. (배송이 오고) 와! 진짜 예쁘다! 선물 받은

척 올려볼까! (선물 받은 척 사진을 찍어 인스타 계정에 올린다) 와우 반응 장난 아닌데. 생일 축하한다고 나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네. 대박. 완전 행복해. 생일날 이렇게 축하 많이 받는 건 또 처음이네.

지아: (엄마한테 전화를 건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엄마: 어? 오늘 무슨 날이야? 지금 엄마 바빠 틈 들이지 말고 빨리 용건만 말해.

지아: 아니에요. 엄마 바쁘신데 전화해서 죄송해요.

엄마: 죄송한 거 알면 다행이다. 다음부터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전화하지 마.

지아: 알겠어요. 죄송해요. (지아 인스타를 확인한다) 영 이게 뭐야. (서화에게 간다) 너 이것들 다 뭐야? 너 진짜 인스타에서 사기 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서화: 아니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알아서 할게. (속삭이듯이) 찌질이 주제 계속 간섭이야

지아: 야 너 뭐라고 했어 지금.

서화: 찌질이 주제에 왜 계속 간섭이냐고! 아무리 같이 산다고 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좀 지켜주자.

지아: 나는 네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잖아.

서화: 걱정? 너나 걱정해. 맨날 내 뒤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맨날 이거 지적 저거 지적 아주 진절머리 나.

지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서화: 네 행동을 좀 돌아봐봐.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 하는 거야? 나 요즘 너무 답답해. 이 답답함을 해소 하려고 인스타 하는 거라고 제발 내 방에서 나가주면 안 돼?

지아: 너는 지금까지 내 조언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서화: 어!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지아: 와! 너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지 않았잖아!

서화: 맘대로 생각해 맘대로 나 이기적이야 됐지!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라고 제발!!!!(지아를 밀쳐낸다)

지아: 요즘에 너무 인스타에 빠져서 나랑 대화도 안 하고 같이 있지도 않는 게 속상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너무 날카롭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진짜 제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겠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해 놓고서는... 진짜 어이없어.

서화: 아니 요즘 들어 왜 이렇게 간섭질인데 따로 살라고 할까?

지아: 어디 가게?

서화:

지아: 와 이제 대놓고 무시한다고?
(인플루언서들의 모임에 또 가서 사진을 찍고 올린다)

지아: 그래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어 이모네. 여보세요.

서화 엄마: 어 잘 지내고 있지? 이번에 할머니 병세가 더 악화돼서. 좀 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서화 전화 좀 잘 받으라고 해.

지아: 네.

서화: (밖에서 들어온다)

지아: 너 이리 와봐

서화: …….

지아: 너 무시 좀 그만하고 좀 와보라고!

서화: 아 왜 또!! 또 간섭질하게?

지아: 아니 이모한테서 전화 왔다고 너 왜 이모 전화를 안 받아? 근 몇 년 간 집에 가지도 않고 이번에 할머니 병세가 더 악화되셨데. 어렸을 적에 너희 할머니가 우리한테 잘해 주셨잖아. 너도 그런 할머니를 좋아했었고. 이모 전화 좀 받고 집에도 좀 가봐.

서화: 평소 나한테 관심도 없다가 가족모임 때만 오라고 하고 가면 친한 척하고 그런 엄마 필요 없어.

지아: 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래도 너를 키워주고 나한테도 자상하게 대해 주셨던 분이신데

서화: 무슨 자상하게 대해주셨다고 해 너한테 고작 잘지내라고 돈 몇 푼 손에 쥐어 준 걸 가지고. 나는 그런 엄마 말고 나에 대해 궁금해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나를 아껴줄 사람.

지아: 너 그거 알아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기 전에 너가 너를 사랑해 줘야 돼.

서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한 번도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지아: 그래 나도 너랑 마찬가지로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지 하지만 너는 달라 사랑이 어떠한 감정인지 잘 알고 있어. 수많은 너의 팬들을 떠올려봐 그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너를 사랑해봐 그들이 너를 좋아하는 까닭이 있을 거야.

서화: 그들은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내가 내 생활 모습과 전혀 다른 사진을 찍어 올린다 걸.

지아: 너의 게시물이 다 가짜라는 건 알아 하지만 게시물과 함께 쓴 글은 진심이잖아. 너의 게시물에 쓰여있는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야. 너의 팔로워 대다수는 너의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너의 진심이 담긴 글을 보고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네가 올린 게시물의 댓글만 봐도 그렇잖아. 웃고 싶을 때나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이 궁금할 때 또는 위로가 필요할 때 너의 계정에 들어와 게시물들을 본다고. 너, 네가 꾸며내는 모습 말고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봐!

서화: 그건 안돼! 그들이 모두 나를 떠나면 어떻게! 그렇게 난 또 혼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만든 인기 계정인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그건 너무 무모한 도전이야. 내가 이 계정

으로 돈도 벌고 있는데 그건 안돼! 광고 해달라는 사람들이 끊기면 어떡해.

지아: 팔로워들이 너의 계정을 팔로우 취소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의 본래 모습을 밝히고 너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으면 너는 그 사람들이 주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만끽할 수 있어.

서화: 네 계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싹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거짓이라는 게 밝혀져봐 내가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왜 내 입장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막 말할 수가 있어?

지아: 나는 너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말한 거야. 어떻게 하면 너가 더 행복할 수 있을지. 나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을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너한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서화: 이렇게 소리를 꺽꺽 치면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너는 왜 항상 나만 생각해? 너도 너 자신에 대해 좀 생각해 봐. 내가 무슨 너의 아바타니?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지아: 너는 내 말을 아예 듣기가 싫구나. 이렇게 계속 말해봤자 뭐해. 듣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너도 너 자신에 대해 좀 생각해 봐. 이런

말 듣기 싫으면. 너가 생각 없이 행동하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잖아.

서화: 뭐라고? 아마 내가 너보다는 나를 더 생각할걸?

지아: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 이쁜 옷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거짓으로 꾸며진 자신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어떤 게시물을 올려야 팔로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으로 너를 치장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너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지. 다 팔로워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이지.

서화: 네가 인스타그램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지아: 인플루언서들만 인스타그램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팔로우 하고 있고 나도 내 계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스타그램에 대해 잘 알아.

서화: 우리 더 얘기해봤자 싸우기만 하니까 그만 얘기하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

지아: 그래.

서화: (혼자 생각하며 말하기) 나에게 대해 생각하라고? 나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글을 잘 쓴다는 것도 점점 더 거짓된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 생각해 보면 지아가 하는 말이 다 맞을지도 몰라. (지아에게 가서) 그동안 나는 계속 사랑받기를 원했지. 하지만 사랑하는 첫 번째 순서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줄 오늘 알았어.

지아: 나도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아직 나도 나를 잘못 사랑해 주고 있어.

서화: 간섭 좀 그만하라고 말했던 거 미안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나를 위해 해준 말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듣기 싫다고 화만 내고.

지아: 아니야. 나도 너가 계속 말 안 해줬으면 하나하나 꼬투리 잡았을 거야. 네 덕분에 내가 계속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처음에 네가 간섭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내 말을 왜 간섭하는 걸로 듣는지 몰랐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간섭을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

서화: 나도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받기 위해 행복한 척, 즐거운 척 애쓰는 것도 이제는 지치는데 너가 말한 대로 이제부터 내 본 모습을 올려볼까?

지아: 그러면 좋지만. 너무 급하게 안 해도 돼. 좀 더 생각해 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계정을 운영하는 게 더 좋을지 생각해 본 후에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

서화: 그래. 너랑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성질냈나 몰라.

지아: 우리가 그동안 좀 예민해져 있어서 그렇지 뭐. 지금 이렇게 쌓여있던 것들을 풀어서 다행이다.

서화: 그러게.

(무대를 바라보며)

서화: 인스타로 인해

지아: 나는 나 자신과

서화: 끊임없는 대화를 했지.

지아: 생일 때도

서화: 모임 때도

지아: 나는 계속해서 나와 갈등을 빚었어.

서화: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지아: 이로 인해 나는 나와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지.

지아: 인스타는 나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고

서화: 나의 내면을 보게 해주었어.

서화, 지아: 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과연 나 자신일까?

담을 넘는 아이

등장인물

담

카페사장

영웅

화이트 캣

핑크 캣

옐로우 캣

뽀글이

뽀글이 엄마

영웅 엄마

소방관

직원1

행인1

김채영

1장

(남색 어두운 조명)

담: (담을 넘으며 무대로 등장 관객석을 보고 놀라며)
보..보셨나요? 아 전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도둑이라고 생각하셨죠? 도둑 아닙니다!! 그런
뻘한 스토리일리 없죠.. 전! 담을 넘는 아이입
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담을 넘는다) 어때
요? 멋있죠? 네 제가 바로 담을 넘는 아이입니
다. 아 언제부터 담을 넘기 시작했냐고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공원 풀숲>

담이 어린시절: (풀숲에서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 거린
뒤 다시 숨어버린다.)

영웅: (뛰면서 등장) 으아아악 들키면 죽을거야... 어
디아... 어디.. 어? (담이가 숨은 풀숲으로 숨는
다)

(정적)

담이 어린시절: 아저씨.

영웅: 으아아악!! 엄마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앵? 아저씨?

담이 어린시절: 아저씨 혼자 뭐하세요?

(정적)

영웅: 아 하하하하 나? 어.. 나 말이야 아 나는 비밀임
무 중이야

담이 어린시절: 비밀임무?

영웅: 검은 조직한테 쫓기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숨
어있는거야.

담이 어린시절: 엄마?

영웅: 아니거든! 검은 조직이 날 쫓고 있다고

담이 어린시절: 그렇구나 아저씨 그보다 저 숨바꼭질
중이니까 다른데 가서 숨으실래요? 아저씨 때
문에 저까지 들키겠어요.

영웅: 아저씨 아니야! 내가 얼마나 젊은데!

담이 어린시절: 저보다 젊어요?

영웅: 이 꼬맹이가? (머리를 한대 때린다.)

담이 어린시절: 이씨...

(영웅 엄마가 등장한다. /영웅이 담을 넘는 어린아이의 입을 막는다.)

영웅 엄마: 아유 애는 진짜... 4수까지 해놓고 어딜 싸 돌아 다니는 거야! 찾기만 해봐!

담이 어린시절: 아저씨 찾는거 같은데...

영웅: 조용히 해

담이 어린시절: 소리 지를 거예요..

영웅: 뭐? 너 소리지르기만 해봐

담이 어린시절: (소리 지르려고 한다.)

영웅: 꼬맹아 사탕 먹을래? (사탕을 건넨다.)

담이 어린시절: 꼬맹아?

영웅: 공주님?

담이 어린시절: 담

영웅: 어?

담이 어린시절: 담이라고요 제 이름

영웅: 아 그래 이쁜 이름이네 담아.

담이 어린시절: 흥! (쓱스러워하며 사탕을 뺏어간다.)

(영웅 엄마 공시령 거리며 퇴장)

영웅: 하아... 죽는줄 알았네.. 꼬맹...이 아니라 담이
 협조해줘서 고맙다. 들켰으면 조직에 끌려갈 뻔
 했어

담이 어린시절: 네에~ 네에~ (작게) 거짓말쟁이..

영웅: 뭐라고?

담이 어린시절: 아니에요

영웅: 그보다 너 이 늦은 밤에 위험하게 혼자 있어?

담이 어린시절: 아까 숨바꼭질이라고 말했잖아요.

영웅: 알아. 근데 아무도 널 안 찾잖아

담이 어린시절:

영웅: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담이 어린시절:

영웅: 할거 없으면... 나 따라와도 되는데

담이 어린시절:(힐끔 쳐다본다) 어딜요?

영웅: (멋지게 망토를 두르고 웃으며) 가자 (담에게 손을 내민다.)

담이 어린시절: (머뭇거리더니 손을 잡는다.)

(영웅의 손을 잡고 담을 넘는다)

영웅: 너 생각보다 대단한데? 이런 높은 곳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이 어린시절: 네? 높은 곳이요? (아래를 살펴본다.)
별로 높지 않은걸요? 그보다 아저씨 망토 두르고 여기서 뭐 할 건데요?

영웅: 아저씨 아니라니까... 난 영웅이라고 해. 담을 넘어 다니지

담이 어린시절: 담을... 넘어 다녀요? 왜요?

영웅: 저기를 보면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손으로 관객석을 가르킨다)

담이 어린시절: (관객석을 보더니 세상에서 쎄 기쁜 표정을 짓는다) 우와....

영웅: 어때?

담이 어린시절: 어.. 기분이 이상해요...

영웅: 그건 기분이 이상한게 아니라 좋은 거야

담이 어린시절: 아저씨...

영웅: 아저씨 아니라니까..

담이 어린시절: 아저씨가 담을 왜 넘어 다니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해요...

영웅: 난 힘들 때마다 담을 넘어. 담은 내가 슬플 땐 넓은 세상을 보라고 높게 올라갈 수 있게 해줘, 그리고 가끔은 내 한계를 도전해보게 높은 담으로 날 시험하기도 하지. 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 넌 힘들 때 어떻게 해?

담이 어린시절:숨바꼭질

영웅: (머리를 쓰다듬는다.) 너도 담을 넘어보는건 어때?

담이 어린시절: 어떻게 넘는데요?

영웅: 이 망토를 쓰고 너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야

담을 넘어서.

담이 어린시절: 근데 왜 망토를 쓰는 거예요?

영웅: 망토를 써야지 내 정체를 숨길 수 있잖아. 망토가 날 가려주니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도 날 못 알아보지. 음... 예를 들어 네가 힘들 때 숨바꼭질을 한다고 했잖아? 그럼 숨바꼭질을 망토를 쓰고 하는 거야. 그럼 만약 들키더라도 너인지 못 알아보고 지나가겠지?

담이 어린시절: 날 숨길 수 있는 거...

영웅: 자 이걸 선물이야. (담이에게 망토를 돌려준다.)

(어두워짐)

화이트/핑크/옐로우 캣: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담: 그때부터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담을 넘기 시작했던 거지. 담을 넘기 시작한 그 날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어.

화이트 캣: 담이님! 망토를 벗은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핑크/옐로우 캣: 맞아요!

담: 절대 안 돼. 너희 내 얼굴을 보게 되는 순간... (화이트/핑크/옐로우 캣을 놀래킨다.)

화이트/핑크/옐로우 캣: 오아아악

담: 대신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사료 주면서) 저번에 담을 넘다가 도둑을 만난 적이 있어 근데 날 보고 헐레벌떡 도망가는 거야.

내가 담을 넘은 경력만 해도 몇이나 난 당연히 도둑을 따라잡고 경찰서에 잡아넣지. 또 한번은 불량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아무 잘못 없는 학생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간지나게 말했지 ‘정의에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말하니 도망쳤어

화이트 캣: 역시! 담이님은 대단해요! 담이님! 담이님은 평소에도 멋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담이: 평소에... 어... 그렇지 난 남을 위해 돕는 것이 내 일이야

옐로우 캣: 어떤 일인데요?

담이: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지.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 희생하고 아주 어려운 일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지구를 지키는 일...?

화이트/핑크/옐로우 캣: 우와 / 지구를 지킨대! / 멋있다 (서로 왼쪽에 있는 애를 쳐다보며 말하다가 마지막에 있는 애는 왼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당황해한다.)

담이: 그렇지! 가끔은 비밀 업무를 담당해 그 사람이
나한테 임무를 맡기면 난 물건을 가지고 조심
히 옮기는 일을 하지

화이트/핑크/옐로우 캣: 역시! /담이님!/ 멋있어요 /

같이: 어디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담이: 요 앞 건물 회사..가 아니다!!!

화이트/핑크/옐로우 캣: (공책에 적는다) 앞 건물 회
사...

담이: 야!! 적지마!! 이놈들아! (화이트 캣과 핑크 캣
의 것을 찢는다/ 옐로우 캣이 종이를 숨긴다)
너희들 집 어지르지 말고 암전히 있어! 알았지?
난 이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갈 시간이다.

화이트 캣: 오늘은 무슨 일 하러 가세요?

핑크 캣: 멋진 일이면 저희도 갈래요!!

담: 안 돼! 너희들은 아직 담도 못 넘잖아. (한숨) 너희
가 왜 담을 넘지 못하는지 알아?

너희가 담을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너희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나 없는 동안 연습하고
있어. 너희들도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을 때 너희가 좋아하는 참치 사올게.

화이트/핑크/옐로우 캣: 네….

담: 아~ 저기서 날 부르는 소리가 또 들리네… 그럼
이 담이님은 간다! (담을 넘어감)

화이트/핑크/옐로우 캣: (사료에 모여 정신없이 먹는다)

2장

(골목길)

담: (주변을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다.)
하.. 큰일 날 뻔 했네.. 8시 30분.. 아직 출근하
려면 30분이나 남았네…

<카페 창문에서 등장.>

담이: 사장님! 토스트 하나 주세요

카페 사장님: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 쾅다.) 에구머니
나! 아오 아가씨! 진짜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죽
겠어!!

담이: 죄송해요.... 그 토스트 하나요

카페 사장님: 아가씨! 왜 자꾸 멀쩡한 문 놔두고 창문
으로 들어오는 거야?그리고 아가씨가 저승사자
야? 맨날 시켜면 망토를 두르고 다녀?

담이: 사장님 이제 익숙해질 때쯤 되지 않았어요? 3년
째인데...

카페 사장: 그러게 아가씨는 3년째인데 변하지도 않고
매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불쑥 튀어나오나

담: 그래도 저번처럼 옥상에서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카페 사장: 아유 그때는 진짜 도둑인 줄 알았어! 다신
그러지 마

담: 사장님! 그리고 언제까지 아가씨라고 부를 거예
요! 저는 담이라고요 담!

카페 사장: 그래! 담! 담! 담! 담! 됐나!

어휴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야
담 줘 그만 넘어.

담 넘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담: 절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라면 걱정 없어요.
전 무려 13년 동안 담을 넘어 다녔으니까요

(핸드폰을 확인하고) 하.. 아메리카노도 1잔 주세요

카페 사장님: 아메리카노? 아가씨 내가 만든 아메리카노가 맛있어?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 아메리카노에는 짠맛과 매운맛이 난다고
난 살다 살다 아가씨처럼 특이한 사람 처음 봐.
우리 카페에서 벌써 3년째 커피를 사 마시다니 아가씨 혹시 난독증이야?

답이: 제가 마시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난독증? 그게 뭐예요?

카페 사장님: 아 글씨 못 읽는 사람.
여기 표지판에 커피는 맛이 없고 김치찌개랑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분명 써놨는데...
우리 가게에서 커피 사 가는 사람 아가씨밖에 없어.

답이: 사장님이 더 특이하신데요..? 카페에서 트로트 노래가 뭐예요? 그리고 카페에서 한식을 왜 파는 거예요...?

카페 사장님:(살짝 정색했다가) 아가씨 몰랐어? 일식도 팔고 중식도 팔아

답이: 예?

답이&카페 사장님: 정말 특이하네... (서로 마주 보며)

(암전)

3장

<회사>

담: 앗! 또 담을 넘었잖아.. 내 다리는 왜 평범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망토를 벗어 가방에 넣는다)

뺨질이: 어? 뭐야. 너 아직도 담 넘고 다니냐?

담: 아... 하필 저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뺨질이: 야 넌 철도 없냐. 초딩도 아니고 다 커가지고 담을 넘어 다녀... 무슨 스파이 놀이라도 하나? (웃기게 스파이 흉내를 낸다.) 너 담 넘어다니는거 부모님은 아시냐? 진짜 창피하겠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회가 무질서해지는거야

담: (소심하게) 내가 담 하나 넘는다고 해서 사회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뺨질이: 니가 담 넘는게 사회에 도움이 안된다는거야. 담 넘는다고 사람 하나 살릴 수 있어? 어? 살릴 수 있냐고 대답 좀 해봐

담: 그건 모르는거죠..

뺨질이: (담 손에 있던 커피를 빼앗아 마시면서) 음...
역시 이 맛이야. 짠맛과 매운 맛이 어우러지는..
너 이제부터 담 넘어다니지 말고 내 커피나 사
와 알았어?

담: 네?

뺨질이: 앞으로 커피나 사오라고, 그리고 오늘은 화장
실이랑 회사 앞에 좀 청소해라! 아까 보니까 쓰
레기가 굴러다니던데 우리같이 잘 나가는 회
사가 더러우면 안 되지... 야 네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거 알지?

회사에서는 청소부가 중심이야! 중심! 아~ 나
도 한가하게 청소나 하고 싶다. 올 때 커피 하나
더 사 와라~ 맞다 너 돈 없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낸다) 자 남은 돈은 너 가져. 너 야간 알
바도 한다며? (작게) 돈이 얼마나 궁하면... 쫓
쫓 (퇴장)

담이: 하아.. (옆에 있던 앞치마와 물통 대걸레를
가져와 청소한다.) 얼굴도 못 생긴게! 재수없
어! 입맛도 이상한게! ... 나는 그냥 담을 넘는
것 뿐이잖아. (걸레질을 하다 멈추고 관객을 바
라보며) 내가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든다고? 내
가? 정말 그런 걸까? 한 번도 담 넘는 게 남한
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담을 넘는
게 나한테만 좋은걸까.. 내가 남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건 아니겠지?

행인 1: (전화하고 있음) 엄마! 나 이번에 승진해!! ..
어! 알았어~ 아빠한테 내가 고기 쏜다고 말해
줘 ~

담: (부럽게 쳐다보다가 핸드폰을 확인한다 엄마한테
전화한다)

엄마: 담아~ 잘 지내고 있어?

담: 당연하지~ 엄마는?

엄마: 딸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담: 아니 나 기분 완전 좋은데? 오늘 사장님이 일 잘한
다고 칭찬했어. 아마 다음 달에 승진할 거야. 엄
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지?

엄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근데 너희 아빠가 좀
아파..

담: 엄마 왜 말 안 했어.

엄마: 너 힘들 텐데.. 그걸 어떻게 말해..

담: 난 괜찮아 엄마.. 내가 뭐가 힘들어 아빠랑 엄마가
더 힘들지..

엄마: 담아 힘들 텐데.. 고마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
고

담: 알았어... 엄마! 내가 이번 주 안으로 돈 보낼게.

엄마: ... 고마워 사랑해 담아..

담: 알았어~ 엄마 나도 사랑해.. (눈물을 빠르게 닦는
다.) 하아... 진짜.. 대기업 회사 직원이라고 거
짓말하고, 담 넘어 다니느라 아빠 아픈 것도 모
르고... 왜 난 평범하게 걸어갈 수 없는 거야!
그까짓 담이 뭐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챙
기기도 바쁜데 계속 담을 넘어야 하는 걸까...
아냐 담은 내 인생을 바꿔줬잖아. 담이 없었다

면 난... 정신 차려. 난 대기업 회사의 비밀 요원이 아니라 걸레로 바닥이나 닦는 청소부라는 걸. 그까짓 담 하나 넘는다고 해서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나 봐... 담 넘어서 뭐 하겠어... 이 순간 이후로 내가 다시 담을 넘으면 난 사람이 아니다. 하 커피나 사러 가야지...

4장

<카페 창문으로 등장>

카페사장: 아가씨! 창문으로 들어오지 말랬지!

담이: 아... 죄송해요.. 습관이 돼서.. 이제 평범하게 들어올게요.. (시무룩하게)

카페사장: 그래.. 평범하게 들어와라... 앵? 평범하게 들어온다고 왜?

담이: 이제 담 안 넘어 다닐 거예요.

카페 사장: 어머 갑자기 왜 이래? (사이) 뭐야 울었어?

담이: 메밀국수 하나랑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카페 사장: 어머 내 말 무시하는 것 좀 봐.. 에휴 요즘

젊은 애들이란...

답이: ...사장님.. 사장님은 왜 이런 이상한 카페를 차렸어요?

카페 사장: 뭐가 이상한데?

답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카페면서 커피 맛은 이상하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팔고 이럴 거면 음식점을 차리면 됐잖아요. 카페에서 밥을 팔다니.. 이상한게 당연하죠..

카페 사장: (메밀국수를 내밀며) 처음에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상하다고 판정 지어 버리지.. 난 그게 싫어서 이 카페를 만든 거야. 나를 바꾸고 싶지 않았어

내가 만든 카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고 싶지 않았고. 내 카페는 커피에서 짠맛과 매운맛이 나야 하고 한식, 중식, 일식을 파는 것이 법이야.

이 카페는 이상한 카페가 아니야. 그냥 내 카페일 뿐이야. (사이) 넌 왜 담을 넘는 거야?

담: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담을 넘는지. 그냥...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처음에는 우연히 담을 넘게 됐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 전 다른 세계를 보았어요.

남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장님. 이렇게 높은 벽을 타고 올라가 본적 있으세요?

이 벽을 타고 올라가면 또 다른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전 항상 담을 넘으면 당당해져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의지대로 행동하고 아무도 저를 억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전 소심하고 자기 의사 하나 제대로 말 못하는 멍청이가 돼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카페 사장: 그게 담을 넘는 이유야?

담:

카페 사장: 질문을 바꿔볼게. 넌 왜 담을 넘어다녔던 거야?

담: 전 대기업 회사에서 일한다고 거짓말하는 청소부고 자존심도 없고,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담을 넘는 그 순간은 제가 제가 아니게 돼요..

담을 넘는 그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전 제 인생에서 제가 빛나고 싶어요. 친구나 부모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살고 싶다고요. 근데 전 항상 남을 위해 살아야 해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도와줘야 하고 누군가가 내 것을 원하면 전 그 사람한테 줘야 해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남들이 원하면

따라줘야 해요 근데 담을 넘는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제 의지이고 제가 유일하게 원하는 거였다고요. 하…..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카페 사장: 너도 벗어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담: 진…

(소방차 사이렌 소리)

카페 사장: 어머! 깜짝이야! 이게 뭘 소리니?

담: 소방차네… 혹시 옆 건물에 불난 거 아니에요?

카페 사장: 내 카페 타면 안 되는데!! 저기요! 불이 어디에 난 거예요??

행인 1: 아 요 앞 건물 있잖아요 그 유명한 회사 거기서 불났던데요

담: 예? 사장님! 저 가볼게요! (아메리카노 들고 담을 넘어 회사로 간다)

카페 사장: 야! 돈은 내고 가야지! 다음번에는 경찰서에서 만날 준비해라!!

(행인1 담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는다.)

5장

<담이네 아지트>

옐로우 캣: 배고프다...

핑크 캣: 담이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참치 얼마나 맛있을까..

옐로우 캣: 있잖아. 난 담이님이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가 너무 좋아.

핑크 캣: 난! 남들은 다 더럽다고 피하던 우리를 담이님이 집으로 데려와 씻기고 맛있는 밥을 주셨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 그래서 가끔 그때의 꿈을 꾸면 너무 행복한 거 있지...

옐로우 캣: 난 담이님이랑 낚시할 때가...

화이트 캣: 너희! 담이님한테 은혜 갚겠다는 생각은 벌써 잊어버린 거야?

핑크 캣: 당연히 아니지! 부모에게 버려진 우리를 담이님이 거두어주셨는데...

옐로우 캣: 맞아... 그때도 우리에게 참치를 주셨지... 참치...

핑크 캣: 그보다 너 어디 있다가 오는 거야?

화이트 캣: 나? 나는... 담이님 방 청소하고 왔지.

핑크 캣: 담이님 방은 출입금지잖아! 너! 담이님 방 더럽히고 왔지? 담이님이 오자마자 누가했냐고 물어볼 거야!

옐로우 캣: 그럼 참치는 떠나겠지... 참치...

화이트 캣: 청소한 거야! 청소!

핑크 캣: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어떻게 청소를 해! 보나
마나 또 그 손으로 문에 예술을 창조했겠지.

화이트 캣: 이게!

핑크 캣: 뭐 덤벼봐!

**(화이트 캣 과 핑크 캣이 몸싸움을 하다가 드러눕는
다 옐로우 캣은 자리를 떠난다)**

핑크 캣: 담이님은 언제 오시는 걸까...

화이트 캣: 야! 계속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거야?
우리도 얼른 연습해서 담이님처럼 담을 넘을
수 있게 연습해야지.

핑크 캣: 난... 아직 담이 무섭단 말이야!

화이트 캣: 너 이러다가 담이님한테 버림받으면 어떡
할 거야!

핑크캣: 담이님은 절대 날 안 버려!

화이트 캣: 너 평생 이려고 살 거야? 담이님이 주시는
밥만 먹고 살 거냐고! 우리도 담이님한테 도움
이 돼야 할 거 아니야!

핑크 캣: 그치만...

화이트 캣: 네가 안 가도 난 갈 거야.

핑크 캣: 누가 안 간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린 담
도 못 넘는데 어떻게 도와줄 거냐는 말이지...
우리가 담이님에 짐이 되면 어떡해...

화이트 캣: 담이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담을 넘지 못하
는 건 너희가 담을 넘지 못할 거라고 자신을 속
이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난 내가 담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속일 거야.

핑크 캣: 너 말이 맞아. 무서워서 도전해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고마워

화이트 캣: 우린 할 수 있을 거야

옐로우 캣: 애들아! 담이님 회사에 불났어!

화이트/핑크/옐로우 캣: 다 같이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인다.

(긴장되는 음향/ 조명 어두운 파란색)
(담을 우여곡절 넘는 것을 보여줌)

6장

<회사>

소방관 1: 여기!! 응급환자가 있다!

담이: 생각보다 불이 크잖아?

행인 1: 소방관님 저기 내 딸이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요...

뺨질이 엄마: 뺨질아~~ 뺨질아~~ 우리 뺨질이 본 사람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웃기게 생긴 사진을 보여준다.)

소방관: (무전기에 대고) 옥상에 4명 인원이 확보됐다.

담이: 옥상에 4명... 지금 구하지 못하면 저 사람들에게 내일은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내가 잘 할 수 있는건 담 넘는 것밖에 없다고 그리고 지금 저 불을 뚫고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소방관 아저씨들이 구해줄 거야.. 소방관 아저씨들이.....

화이트 캣: 저기에 담이님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구하러 가야 해!

(담 화이트/핑크/옐로우 캣이 나타나자 숨음)

핑크 캣: 좋...좋아! 우리가 담을 넘어서 올라가자!

옐로우 캣: 너희 할 수 있겠어? 우린 오늘 처음 담을 넘어봤다고 근데 불을 넘어서 담이님을 찾으려 가는 게 말이 돼?

화이트 캣: 담이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 이건 너희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옐로우 캣: 맞아 담이님을 구하러 가자!

화이트/핑크/옐로우 캣: 가자!

담: 이런 모습은 내가 아니야.. 난 담을 넘는 아이라고!

(망토를 두른다)

화이트 캣: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해 지진이 일어나자
중심을 잃고 담에서 떨어지려고 한다)

핑크 캣: (화이트 캣에 손을 잡음) 내 손 꼭 잡아!

(멋지게 뛰어 화이트, 핑크, 옐로우캣을 구한다)

담: 괜찮아?

화이트 캣: 담이님!

핑크 캣: 담이님을 구하려고 했는데... 어서 내려가요!

담: 아니. 아직 위에 사람들이 있어.

옐로우 캣: 저희도 따라갈게요.

담: 위험할텐데.. 괜찮겠어?

화이트/핑크/옐로우 캣: 네! (다 같이 담을 넘는다)

(빨간 조명으로 바뀌고 불타는 소리가 들린다)

직원 1: 여기예요! 여기!

담: 다들 괜찮으세요?

(화이트/핑크/옐로우 컷은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직원 1:네

담: 혹시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직원 1: 8명이요

담: 내가 생각했던 수보다 훨씬 많잖아... 여러분!! 지금부터 담을 넘어 이곳을 탈출할 거예요.

뺨질이: 너 미쳤어? 이 꼭대기에서 어떻게 담을 넘어서 탈출해.

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말만 잘 듣고 따라와 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제발. 절 믿어주세요...

(담이 먼저 길을 나서자 그 뒤로 화이트/핑크/옐로우 컷이 따라온다. 무사히 건너편으로 넘어간다)

담: (기둥에 긴 천을 묶는다.) 지금부터 이 천을 이용해 서 사람들이 넘어올 거야. 천을 저 기둥에 묶어 줘.

화이트/핑크/옐로우 컷: 네!

(담이 자신의 몸에 천을 묶고 다시 옆 건물로 넘어간다. 사람들이 순서 대로 옆 건물로 무사히 이동한다. 뺨질이만 남았다.)

뺨질이: 빨리... 나도 구해줘...

(건물에 가스가 터져 건물이 점점 무너진다.)

담: 곧 있으면 건물이 무너질 거야...

뺨질이: 으아악 불! 옷에 불이 붙었어!!

담: (아메리카노를 부어 불을 끈다.) 시간이 없어요!

(뺨질을 데리고 옆 건물로 가던 중 뺨질이 중심을 잃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다 담의 망토를 벗김)

뺨질이: (바람이 불어 떨어지려고 함) 으아악 야! 살려줘! 살려달라고!

담: 내... 내 망토.. 망토가 없으면..

화이트/핑크/옐로우 캣: 담이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망토 찾을 시간이 없어요!

뺨질이: 진짜 떨어지겠어! 네가 담을 넘는 일은 사회를 구하는 일이야. 너의 사명감을 잊지마 사회의 질서를 지키라고! 고민하지마! 지금 네가 생

각하는 그거야! 날 구하라고!

담: ...이건 내가 아니야.. 난 못해..

카페 사장: 담아! 너도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 주변 환경에서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너한테서... 담아 넌 충분해 부족하지 않다고 담을 넘든 넘지 않든 그건 너야! 숨지마!

담: 나.. 난! (뺨질을 구한다) 난 담이야! 난 나라고!

뺨질이: 단체로 돌아왔어..

(건물 밑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담이를 보고 환호성을 지른다)

(담은 다시 망토를 쓴다.)

뺨질이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담: 아.. 아니에요..

뺨질이: 엄마! 뭐가 고마워! 재 때문에 죽다 살아났는데!

뺨질이 엄마: 넌 생명의 은인한테! 따라와! (뺨질이 귀 잡고 퇴장)

행인 1: 팬이에요! 사인 좀 해주세요!

담: 네? 네..

카페 사장: 인기 많은데? 담아 지금 이 모습이 너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 아닐까?

담: ... 고마워요...

화이트/핑크/옐로우 캣: 담이님! 망토를 벗어도 충분히 멋있어요!

카페 사장: (망토를 벗기며) 이게 너야

담: ... 사실 나는 망토를 써도 안 써도 담을 넘을 수 있는 거였는데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나봐 나는 그 자체로도 충분했어.

화이트/핑크/옐로우 캣: 맞아요 우리도 그 자체로도 충분했어요

다 같이: 그래! 우리는 그 자체로도 충분했어!

담: (크게 웃는다) 야! 가자!

화이트/핑크/옐로우 캣: 어디요?

담: 담 넘으러!

뱃! But,

등장인물

아리

은광

엄마

새엄마, 새아빠

원장님

보육원 아이1,2,3

장소: 보육원

최예슬

1장: 보육원

엄마는 아이를 보면서 “나중에 봐”라고 하고 아이는 “응...”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사라질 때까지, 구두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을 때까지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암전

아리: 안녕..?

보육원 아이1: 안녕!

보육원 아이2: 선생님 애는 누구예요?

보육원 아이3: 근데 애가 들고 있는 인형 진짜 꼬질꼬질해! 키득키득

선생님: 자자 그럼 이제 새로 온 친구 놀리지 말고 사이 좋게 잘 지내고!

보육원 아이들: ...

선생님: 어허 대답 안 할 거야!

보육원 아이들: 네에......

아이들이 끼리끼리 놀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아이. 여자아이는 처음 왔을 때 들고 있었던 곰 인형을 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곰들이 인형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보육원 아이1: 아, 이게 뭐야? 아 으 드러워!

보육원 아이2: 야 패스패스패스

보육원 아이3: 에베베베벵베베베

아이: 훌쩍... 훌쩍...

아리는 고개를 떨군 채 그냥 묵묵히 있다. 울음소리 같은 아리의 콧물은 계속해서 나온다. 콧물을 마시는 소리가 울음소리 같긴 했지만 아리의 작은 손에는 주먹이 꼭 쥐어져 있다. 아리를 괴롭히던 무리가 사라지자 아이들이 버리고 간 곰 인형을 들고 다가오는 한 아이.

은광: 안녕?

고개를 들어서 인사한 사람을 바라보는 아이.

은광: 잡아(아이에게 손을 내민다. 그리고 친구의 품에는 곰 인형이 있다.)

아리: (흠칫 놀랐지만 그렇지 않은 척) 고마워.

은광: (옆에 앉으며) 넌 이름이 뭐야?

아리: 난 아리야.

은광: 우와!

아리: 넌?

은광: 나? 난 이름이 없어... 내 이름이 뭔지 몰라.. 아! 네가 지어줄래?

아리: 음... 내가?

은광: 응 너가!

아리: 그럼..은광! 어때

은광: 우와!! 이빠! 나랑 완전히 잘 어울리잖아? 고마워! 근데 이름이 무슨 뜻이야? 왜 은광이야?

아리: 우리 아빠가 이름이었는데.

은광: 그런데 너희 아빠 이름이면 네 주변에 은광이 두

명이잖아. 그럼 어떻게 구별해?

아리: 아빠는 이제 내 주변에 없으니까 괜찮아.

은광: 왜?

아리: 돌아가셨거든.

은광: 아... 그렇구나..

아이: 은광아.

은광: 미안... 아! 이름 지어줘서 고마워! 진짜 신기해.
다른 사람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구나.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알아채고 알아
봐 준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구나. 신기해.

은광은 처음 등장부터 지금까지 곰돌이인 형을 들고 있다.

은광: 근데 너 왜 혼자 있어? 친구는 없어? 엄마아빠
는?

아리: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혼자야. 애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2장(암전): 건물

새엄마: (서랍 뒤에 숨어서 속삭이듯) 저 애예요. 저
애!

새아빠: 저 애가 당신 마음을 쭉 빼앗은 녀석이구먼?

새엄마: 여보! 녀석이라니! 숙녀한테 실례예요. 그리
고 저렇게 귀여운 아이한테 녀석이 뭐예요. 아
니, 글썸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인데
어쩜 저리 자립성이 좋은지 자기 혼자 척척 할

일을 다 해요. 그리고 완전히 의젓한 거 있죠?
아직 8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귀여운 거 있
죠?

새아빠: 보통 8살이면 다 자기 할 거 하는데..

새엄마: (등짝을 때린 후 노려본다)

새아빠: 아휴 알았어요. 알았어. 어차피 입양을 생각하
고 있었으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아이 할 같이
살자고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급하게 결정한
게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이렇게 급하게 결
정해도 괜찮겠어요?

새엄마: 아마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난 저
애가 좀 불쌍해요. 보육원에서 왕따를 당하는
데다가 원장님한테 사정을 들으니까 엄마가 아
기를 키우기에는 좀 빠듯해서 아기를 맡긴 것
같던데 저 애가 여기 12개월 동안 있는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불쌍하고 무엇보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가
상처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어요.

새아빠: 역시 우리 여부네. 하하 그럼 입양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사랑으로 키워보자고요,

새엄마: 여보! 아니 자기 (하트) 내가 사랑하는 거 알
죠?

새아빠: 이럴 때만! 흥!

새엄마: 아이

새엄마: (원장실 문을 두드리며)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문을 열며)네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새엄마: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쩐 일로..?

새엄마: 일단 이거 좀 드셔보세요. 요즘 같은 더위에는
몸도 챙겨가면서 일해야 해요~

원장님: 아이고 사모님 감사드려요. 아우 진짜 항상 와
서 남들 머뭇거리는 일 서슴없이 해주시고 매
번 와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까기 하니 정
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네요.

새엄마: 감사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입양을 하려
고 하는데요

원장님: 아 입양이요?

새엄마: 네

원장님: 누구 입양하시게요?

새엄마: 아리요.

원장님: 저희야 그 친구가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산
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데... 요, 어, 음(입소리
로) 그런데요. 보통 아이를 입양할 때 10살 아
이를 입양하진 않습니다. 10살이면 새 부모님
들이 자신을 낳은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고 있을뿐더러 심지어 저 친구는 자신의 부모
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아이가
혼란이 와요.

3장(암전): 원장실

아있었다. 아리와 눈이 마주치자 중년의 여자가 주인공에게 활짝 웃어보인다. 햇살같은 웃음이었다.

원장님: 자 인사해.

아리: 안녕하세요.

새엄마: 안녕?

새아빠: 안녕.

새엄마: 우와 귀여운 친구랑 같이 다니는구나. 아줌마한테도 소개시켜주겠니?

아리: 은광이에요.

은광: 안녕하세요.

새엄마: (곰돌이 인형에게 인사하고 은광의 말을 끊으며)안녕? 만나서 반갑구나.

이때 은광이는 곰돌이 인형을 안고 있다. 그런데 엄마는 은광이가 안고 있는 곰돌이 인형을 보면서 인사를 하고 아리는 은광의 얼굴을 보면서 말한다.

아리: 그런데 전 입양 안 갈 건데요. 우리 엄마가 나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요.

원장: 어? 너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아리: 누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아무튼 전 입양 안 갈 거예요. 여기에서 엄마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원장: 앗 그래도..00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기라도 하는게 어떠니?

아리: ... 싫어요.

원장: 응? 정말 좋은 분이셔.

아리: 저희 엄마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원장: 그런데 너희 엄마가 허락을 하시...

새엄마: (말을 끊으며)아 그러면.... 그래. 엄마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니?

아리: 엄마랑요? (놀란듯한 동그란 눈동자를 강조하며
눈을 부릅뜨다.)

새엄마: 응

**그렇게 아이는 떠나가고 원장은 새부모님들을 보면서
괜찮겠냐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새아빠: 괜찮아요. 집사람이 그쪽 엄마랑도 연락이 되
어서 이야기를 맞췄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쪽
엄마는 아이를 입양해주는 것에 고마워하던데
요.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우리 집사람의 입양
의지가 더 굳어진 것 같지 뵙니까. 하하

아리: 엄마랑 만날 수 있어!!

은광: 진짜 행복해보이네.

아리: 그럼! 엄마랑 안만난지 진짜 오래됐거든.

은광: 근데 엄마는 왜 너를 찾아오지 않아? 나 여기에
서 지낸지 반년동안 너네 부모님이 누군지 보
지도 못했어.

아리: 우리 부모님...?

은광: 응.

아리: 내가 잘못했거든.

은광: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너를 찾아오지도 않아?

아리: 나는 엄마한테 있는 것만으로 짐이야. 나는 계속

먹어야 하고 필요한것도 많아. 그래서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해.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닌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야.

은광: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야! 너는 그냥 어린애야. 도움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지! 이 세상에 그런 이유가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런 생각 하지도 마!

아리: 그래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건..

은광: (말을 끊으며) 너 때문에 아니야!!

아리: 알았어... 그리고 고마워.

4장: 휴게실

똑똑똑(노트소리)

아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엄마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원형 탁자에서 아리는 엄마를 기다린다. 친구와 함께 말이다. 아리는 엄마를 기다리는 것이 익숙한 듯 계속해서 기다린다. 그리고 등장하는 엄마. 엄마의 웃은 다림질을 해 뺏뺏하지만, 다림질에도 가릴 수 없는 허름한 웃이었다.

엄마: (웃으며 등장)

아리: 엄마! 왔어요?

엄마: 그래. 뭐 좀 먹을까?

아리: 팬찮아요.

엄마: (오랜만의 만남이 어색한 듯 주변을 둘러본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는 은광이가 들고 있는 곰 인형에 인사한다) 어머, 이 친구는 우리 아리한테 소개해줬던 친구네?

은광: 안녕하세요.

엄마: (은광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광의 인사에 반응하지 않고 말한다)이 친구는 변함없이 이쁘네. 그런데 무슨 일이야?

아리: 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왔어요.

엄마: 응? 뭔데 그래?

아리: 제가 있는 보육원에서 누가 저를 입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랑 같이 살 거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를 만나고 오라고 해서 엄마 만나러 왔죠.

엄마: 그랬구나. 보육원은 어때? 엄마가 한 번도 못 가봤네..

아리: 음.. 좋아요! 엄마가 소개해준 이 친구랑 같이 있어서 이 친구랑 놀고 수다도 떨고 하고 있어요!

엄마: (조심스럽게) 진짜 좋아? 다른 친구들은?

아리: 다른 친구들도 좋아요! 다들 잘해줘요. 그러니까 엄마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 그래.. (급하게) 나 이제 가봐야겠다.

엄마는 휴게실에서 나와 문 앞에서 새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한다.

엄마: (문 앞에 서서)…….만났어요.

새엄마: 어때요? 어이가 많이 힘들어하나요?

엄마: 사실 아직 이야기를 못 했어요.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보육원에서 왕따도 당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 때문에 좋다고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애 앞에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새엄마: 많이 힘드셨겠네요.

엄마: 그래도 다음에는 꼭 말할게요.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니깐. 아이… 잘 부탁드려요. 저랑 한 약속 잊지 말아줘요.

5장: 방

아리: 히히히

은광: 기분 좋아 보이네.

아리: 그럼!! 엄마랑 만나고 왔잖아.

은광: 너는 엄마가 왜 좋아?

아리: 엄마? 그냥 엄마니까.

은광: 그러니까, 왜?

아리: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낳아준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잖아. 엄마가 나에게 하는

모든 결정은 날 위한 결정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은광: 그럼 그런 부모님이 만약에 너를 입양 보내기를 원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아리: 응? 그럴 리가 없어.

은광: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아리: 그럴 리가 없다니까?

은광: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아리: ...만약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은광: 그럼 넌 입양 갈 거야?

아리: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건 결국 날 위한 일일 거야.

원장님: 아리아, 아리아.

아리: (크게) 네!! . 가자.

원장님: 엄마가 또 만나고 싶다고 하네? 어떻게 할래. 만날래?

아리: 네!

6장: 휴게실

아리: 엄마! 오셨어요?

엄마: 응.

아리: 엄마. 요즘 엄마랑 많이 만나서 좋아요. 히히

엄마: ㅎㅎ(아이랑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고 바나나우

유만 만지작거린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아리: 뭔데요?

엄마: 입양... 가볼래?

아리: 네?

엄마: 하아... 거짓말은 못 하겠다. 그때 원장님한테 들었어. 너 보육원에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아이들이 너 왕따시키고 괴롭힌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 온종일 일하다가 끝나면 아주 늦은 저녁이라서 가보지도 못하고 항상 그렇게 있었는데 그곳에서 네가 힘들다는 거 듣고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입양 가자. 입양 가서 행복하게 살아.

아리: 싫어요!! 나 기다릴 수 있어!!

엄마: 엄마가 데리러 못 갈 것 같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엄마는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아리는 울고 있다.

울고 있는 우리에게 새엄마가 다가온다.

새엄마: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아리: 저리 가세요!

새엄마: 아리야. 아줌마 한 번만 봐 볼래?

아리: (눈물이 고인 눈으로 힐끔 쳐다본다)

새엄마: 사실 있지 엄마가 지금 아프셔. 엄마가 아주 아픈데 그거 때문에 아주 나중에도 아리가 보육원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까 봐 엄마는 걱정하시는 거야. 그래서 입양을 허락해 주셨어.

아리: 엄마... 아파요?

새엄마: 응...

아리: 그럼 내가 아줌마랑 같이 살면 엄마 더 이상 안 아파요?

새엄마: 그렇진 않아. 그런데 엄마가 마음 편히 수술받을 수 있데. 그리고 그 수술비도 아줌마가 줄 거고.

아리: 그럼 내가 아줌마랑 같이 살면 엄마는 행복해요?

새엄마: 사랑하는 딸을 못 보니까 많이 힘들겠지? 그러니까 가끔 엄마 보고 싶을 때 엄마 보러 가면 되지. 엄마가 지금은 우리 어린이를 돌보지 못해서 그래. 엄마가 수술이 잘 못 되면 너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리: ...(눈물 푹푹) 그럼 나 엄마 만날래요.

전화로 엄마를 불러준 새엄마. 그리고 엄마는 달려왔다.

아리: 엄마!! (달려가서 안긴다)

엄마: 우리 딸사랑해. 우리 딸 많이 사랑해.

아리: 나두..

엄마: 아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야 고마워. 오늘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얼른 가서 쉬어.

은광: 근데 너는 왜 엄마랑 그냥 사랑한다고만 말하고 끝내? 더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

아리: 응.. 나도 처음엔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은광: 왜?

아리: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면 충분한 것 같았어. 그 말 한마디에 엄마에 대한 사랑과 엄마의 말대로 살 거라는 결심과 약속이랑 무엇보다 난 계속 영원히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

은광: 신기하다.. 근데 또 슬프겠네...

아리: 응.....

은광: (화제를 전환하려는 듯 밝게) 새 부모님은 어때?

아리: 내일 만나서 같이 살 때 필요한 거 사기로 했어.

은광: 새 부모님은 좋아?

아리: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가 같이 살라고 한 사람들이니까 예의 없게 굴면 안 돼!

은광: 싫지만은 않은 것 같던데. 너 저번에 그분들이랑 만나고 난 다음 일기장에 (연기하듯) ‘햇살 같은 웃음이었다. 포근했다. 엄마랑 같이 산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다.’ 라고 적어놨던데?

아리: 그건 그렇지만... 너 이썬! 너 이 자식 그거 어떻게 봤어! 이놈의 자식!

친구: 헤헤 뭐 어때 우리는 운명의 단짝인걸. 네가 적지 않았어도 난 알았을 거야. 암튼 난 그 사람들 괜찮은 것 같던데? 너랑 같이 살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암. 암튼 만나봐봐. 너도 그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

7장: 백화점

아침이 밝고 아이는 새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 그런데 아이가 가게 된 곳은 다름이 아닌 백화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아이의 침대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이나 디자인 등을 일일이 물어보며 그렇게 그들은 쇼핑한다.

아리: 전 아무거나 좋아요.

새엄마: 아이, 정말. 세상에 아무거나고 건 없다니까. 아무거나 골라봐.

아리: 방금...

새엄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ㅎㅎ

아리: 아무거나고 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는 새엄마와 아이는 서로 눈이 마주치고는 함박웃음을 짓는다.

아리: 전 파란색이 좋아요.

새아빠: 오! 진짜? 나도! 난 파란색이 그렇게 좋더라. 아, 초록색도.

아리: 어? 저도요. (신기했지만 별로 그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새아빠: 우리 완전 자연의 색을 참 좋아하네? 다음에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뒤덮여있는 곳으로 갈까?

아리: 그게 어디예요?

새아빠: 바다랑 산!

아리: 우와!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오랜만에 흥분하며)

아리의 흥분한 모습에 새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있다가 금새 흐뭇한 표정으로 아리를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리.

아리: 나 왔어!

은광: 오 왔어?

아리: 응! 오늘도 진짜 좋았어. 그분들이랑 저번에 바다랑 산에 가자고 약속했던 게 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갔다 온 거 있지!!! 그런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이뻐서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 파란색이 한 3가지 정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바다에는 파란색이 정말 다양하고 너무 이쁘게 많고 또 있지 산에서는 분명 같은 초록인데 완전 다른 분위기를 뿜내고 있는 나무들 덕분에 정신을 잃을 뻔했지 뭐야.

은광: 진짜? 이제 그분들이 좋나 보네?

아리: 사실 조금 좋아. 엄마와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처음으로 내 방도 가져봤다? 나 그분들이랑 만나면서 내가 10살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 아직 안 해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랑받고 싶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은 10살 말이야. 나는 벌써 10살이 아니라 이제 겨우 10살이잖아? 어리광부릴 수 있는 어른이 나에게 필요했던 거였어. 나는 보호받고 자라야 하는 어린이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랑 잘살아보려고. 항상 불안정하게 흔들렸던 나에게 이제 안정이 찾아온 느낌이야. 이게 행복일까? 만약 행복이라면 계속 내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

은광: 잘됐네

아리: 응! 근데 잠 와?

은광: 응?

아리: 계속 말이 느려져서.

은광: 아, 응... 나 잘래. 잘 있어.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한 생각만 하고 이제 행복해야 해. 난 항상 너의 행복을 응원할 거다! 내일도 화이팅!

아리: 뭐야 어디 갈 것처럼. 뭐 암튼 내일 이사 가니까 폭 자~

8장: 보육원(암전)

아리: 야, 얼른 일어나!!

은광: 왜

아리: 야, 너 요즘 진짜 왜 그래. 저번엔 항상 날 깨워 줬으면서. 어디 아파?

은광: 아니.

아리: 그럼 나 오늘 그분들 만나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은광: 알겠어.

아리: 그래서 있지 내가 어제 진짜 너무 좋았었다고 말했었나?

은광: 몰라

아리: 흠... 아니야 내가 말했었어! 그래서 내가 또

너한테 화냈었잖아.

은광: 그랬었나

아리: 응! 이제 가자! 그분들이 기다리셔.

아리는 새 부모님을 만나서 짐을 옮기고 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서 새 부모님과 이야기를 한다.

새엄마: 그 친구는 항상 같이 있네?

아리: 하하 네! 이 친구는 항상 저랑 함께였어요.

새아빠: 왜 과거형이야?

아이: (아련한 슬픔) 함께였는데 이제는 떠났어요. 저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새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쪼끔 슬프지만, (아자를 하며) 괜찮아요! 이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요. 지금 진짜진짜 행복하거든요. 은광이가 질투할 만큼.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 인형을 드디어 품에서 내려놓는 아리.

My life, My drama

지도교사 조영민

참여학생 김다은, 김민지, 김채영, 이유진, 최예솔

편 집 임청명

주 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향로 89, 애터미 인재개발원 드림미학교

홈페이지 <http://dreamyedu.net>

전화번호 041) 557-0179

팩 스 041) 557-0180